

# 양돈산업 국제경쟁력 있는가? 양돈업 국제 경쟁력 있는가?



◇…본회는 UR협상 타결에 따른 양돈산업의 수입개방시대를 맞아, 현 상태대로 돼지고기 수입이 개방될 경우 국내 양돈산업이 외국과의 경쟁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조명해 보는 세미나를 지난 3월 22일 반도아카데미에서 개최했다.

150여명의 양돈관계자가 참석한 이날 세미나는 양돈업계의 현 상황을 반영하듯 참석자들이 시종 숨을 죽인채 진지한 자세로 발표내용을 경청했으며, 주제발표자들도 여느 세미나와 달리 충실한 내용을 발표하는 등 양돈업계의 큰 관심속에 진행되었다.

이날 세미나의 주제발표 내용과 토론내용을 특집으로 꾸몄다  
 <편집자주>.....◇

- ◇주제발표자 : • 정숙근 박사(대한양돈협회 제1검정소)  
 • 하대중 실장(제일제당 육가공기획실)
- ◇토론참가자 : • 김경남 과장(농림수산부 축산경영과)  
 <발표순> • 정형기 지부장(대한양돈협회 무안지부)  
 • 김용진 차장(축협중앙회 조사부)  
 • 정찬길 교수(건국대 축산경영학과)

# “양돈산업 현 상태론 국제경쟁 불가능”

## — 생산비 절감 위한 과감한 대책 긴급 —

— 홍 보 부 —

국내 양돈산업이 개방화시대를 맞아 과연 국제경쟁력이 있는가, 없느냐로 양돈관계자들 사이에 많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를 조명해 보는 세미나가 본회 주최로 3월 22일 반도아카데미에서 열렸다.

결론적으로 말해, 이날 세미나 주제 발표자와 토론 참가자들은 현재 돼지 생산비 하에서는 국내 양돈산업이 국제경쟁력이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 상태로 돼지고기가 수입될 경우 외국산 돼지고기가 국내시장을 급속히 잠식할 것이 분명하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양돈산업이 외국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현재의 돼지 생산비 13만원을 10만원선으로 낮춰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배합사료 영세율 적용, 분뇨처리시설 자금 전액 보조, 융자금 상환기일 연장 및 금리 인하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날 주제 발표를 한 정숙근 박사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식문화 하에서 국산육과 수입육을 품질로 구분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밝히고, 문제는 생산비가 수입을 결정하는 척도라고 주장했다.

### 미국 돼지 생산비 우리나라의 53% 수준

정박사는 “현재 우리나라의 돼지 생산비는 12만 3천원인데 반해 미국은 우리나라의 53%

수준인 6만5천원이고, 덴마크는 61.8%인 7만6천원, 대만은 87%인 10만7천원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우리나라가 미국산 돼지고기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생산비를 10만원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박사는 “생산비 절감은 정부가 제도를 개선하는 방법과 양돈농가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전제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으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통해 5,000원, 시설자금 금리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을 통해 4,000원, 분뇨처리자금 전액보조를 통해 3,000원, 수입육수수 자가 배합 허용을 통해 3,000원을 절감해 총 15,000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돈농가는 모든 두당 출하 두수를 16두에서 20두로 늘림으로써 4,000원, 사료요구량을 3.7에서 3.5로 내림으로써 4,000원을 절감해 총 8,000원을 절감할 수 있다.

정박사는 양돈농가의 생산성 향상은 오랜 기일이 경과해야 달성할 수 있는 반면, 정부는 농촌을 살리겠다는 의지여하에 따라 지금 즉시라도 제도를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경쟁력 유무는 결국 정부의 의지에 달린 문제로 결론지었다.

또한 주제발표를 한 하대중 실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식문화와 돼지고기 유통구조, 검역제도, 유통기간, 물류비용 등을 감안할 때 냉장돼지고기의 수입 가능성은 없다”고 말하고, 그러나 냉동육은 삼겹살, 갈비 등 특정 부위를 중심으로 수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실장은 “가격경쟁력은 각국의 생체시세나 지육시세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실제 국가간 무역거래는 정육상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같은 평가 방법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무역에 있어서 가격만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히고, 경쟁력을 평가할 때는 각 부위의 규격과 각 수출국들의 실제 현황이 충분



히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 생산비 절감 말처럼 쉽지 않아

하실장은 국제경쟁력과 관련, “한국양돈산업 주도집단의 돼지 생산비가 12만원(생체 kg당 1,340원)이라면 국제경쟁력 논의는 사실상 무의미(국제경쟁력이 없다는 뜻)하다”고 밝히고 “국내 생돈가격대별 부위별 원가와 이에 상응하는 수입돈육의 국내규격 환산가격을 종합적으로 대비할 때 국내 생돈가격이 1kg당 1,400원에서 안정되면 수입돈육의 국내시장 전입이 봉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가격경쟁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이라고 말하고, “국내 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가격의 상승이 특정국의 특정 부위의 수출

가격 경쟁력을 부여해 준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가한 정찬길교수는 “생산비를 1% 내리는데 5~10년이 걸리는 등 매우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 등에서 몇년안에 생산비를 20~40% 내리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는 것으로 재고돼야 한다”고 강한 톤으로 비판했다. 그는 그 증거로 우리나라 돼지 생산비는 지금까지 해마다 상승해 온 것을 예로 들었으며, 이런 발표를 할 때에는 반드시 실험데이터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를 통해 볼 때 정부는 빠른 시일내에 돼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획기적으로 생산비를 절감하는 대책을 시행해야 하겠다. 계명